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 2B -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사역 시작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이고, 여기는 마태복음 수업의 2B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의 핵심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보충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요. 또한, 11페이지에 마태복음 2장의 다른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장은 2장 1-12절과 2장 13-23절로 구성된 두 막으로 구성된 일종의 드라마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2장 1-1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숭배는 2장 13-23절에 나오는 헤롯의 배신과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2장 4-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상한 무관심도 있는데, 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재빨리 드러내지만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천사의 현현과 꿈을 통해 새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요셉은 도전이 주어질 때마다 순종합니다. 이 사건들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강조되는 두 가지 주제를 암시합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확장됨을 암시합니다.

둘째, 헤롯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은 이스라엘 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불신앙은 특히 노골적이면서도 교훈적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이 장이 끝나자마자 헤롯은 죽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구약의 패턴과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티프는 8장 10절, 15장 28절, 21장 31절, 그리고 22장 8-10절에서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카이아스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보충 자료 11페이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본문의 초점을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미가 5장 2절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2절을 생각해 볼 때, 마태가 헤롯을 왕으로 지칭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명시한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헤롯의 왕권은 단지 정치적인 직책에 불과하며, 그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1장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왕권처럼 진실하고 정당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2장 2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적절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수도이자 위대한 왕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5장 35절, 시편 48편 2절 인용). 또한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예수님은 솔로몬과 그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12장 6절과 42절). 예수님은 21장에서 정당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셔야 했지만, 며칠 후 27장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불안한 두려움만 안겨주는 반면, 신비로운 이방 박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박사들의 헌신은 헤롯의 배신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겉보기에 무관심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왜 이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박사들이 천체 현상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적 성취를 예고한다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했음이 분명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특정 별을 그 예언과 연관시켰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동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메시아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에 다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은 누구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됨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다른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의 본을 따르도록 권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서는 무관심하게, 나중에는 반감으로 반응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께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은 마태의 유아기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원과 초기 행적을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집트로의 피난, 16절에서 18절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로의 귀환입니다.

이 각 부분이 마태복음 특유의 성취 공식을 도입하는 구약성경 인용으로 끝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신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헤롯의 분노는 사실 동방박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분노는 마치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에 인용된 왕들의 분노처럼 한심하고 무의미합니다. 돌이켜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유아기 이야기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유아기와는 거의 관련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혈통, 기적적인 잉태, 초기 예배와 반대, 그리고 나사렛 거주를 추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역사적 패턴과 예언적 예언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 역사와 예언의 정점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그는 악한 반역자 헤롯과 대조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그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데이비스와 앨리슨은 그들의 탁월한 주석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2장에서도 다시 반복하십니다. 잠시 후 마태복음 2장의 구약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모두 발전합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사이의 대조는 완전한 적대감으로 폭발하여 결국 그분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역은 부활과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족보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장 18-25절에 암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2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4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12장 42절에서 솔로몬 왕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확인하시고, 16장 28절과 다른 구절들에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지상 재림을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장 5절에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2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을 참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주장을 입증하고 모든 권세가 주어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확증할 것이었습니다.

28:18 시간이 부족하여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 성경의 용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2장 5절과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 구절이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로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자들은 민족을 위한 선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는 호세아 11장 1절,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노라"라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모형론적인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에는 역사적 패턴이 존재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이 이전에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되풀이하십니다.

2장 17절과 18절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라헬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은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인 구절이며, 마태는 베들레헬에서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지막으로, 2 장 23절은 매우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복수형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마태복음 관련 문헌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은 단순히 나사렛을 조롱과 수치의 장소로 지칭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사렛은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곳은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지, 당신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요점일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어 단어 netzer에도 뭔가 있을 수 있는데, 가지를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연구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3장은 마태복음에서 공관복음과 평행을 이루는 첫 번째 부분이며, 마가복음 1장 1-11절과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이 장은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광야에서의 요한의 사역(3:1-6),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요한의 갈등(3:7-12), 그리고 요한의 예수에 대한 세례(3:13-17)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마태복음 2장 23절과

마태복음 3장 1절 사이에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외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성경은 대체로 침묵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지식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놀라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누가복음 2:25-38).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초기는 2:40과 2:52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열두 살 때 유월절에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에 오셔서 사셨던 때부터 성인이 되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58절에서 예수님의 나사렛 성장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마태의 신학적 목적은 이 시기에 대한 전기적 세부 사항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3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 이야기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하여 요한의 투옥으로 끝납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유대 광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심을 끌자,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3장 7-12절에서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주저했지만, 3장 13-15절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주장에 따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승인한다는 것을 알립니다(3장 16-17절). 다음으로, 예수님의 신적 아들됨이 사탄에게 시험받지만, 예수님은 4장 1-11절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는 이사야 9장 1-2절, 즉 4장 12-16절의 성취입니다. 3장 1-4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의 세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승인하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께서 확증하신 이 아들됨은 사탄에 의해 즉시 시험받습니다.

이 시험 후,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은 처음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34절과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사해 두루마리와 같은 한 가지 배경에서만 벗어나는 설명보다는 제2성전 유대교의 유사한 활동들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구약성경 자체도 용서, 영적 순결, 그리고 종말론적 축복을 상징하는 물의 정결을 자주 언급합니다.

시편 51:6-9, 이사야 4:4과 44:3, 예레미야 4:11-14, 에스겔 36:24-27, 스가랴 13:1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와 이러한 구약적 배경 사이에는 세 가지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회개와 세례를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방인 압제자들 때문에 발생했고 메시아의 사명은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뿐이라는 당시의 견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요한의 세례는 구약이나 쿰란 공동체처럼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고백 행위였습니다. 셋째, 요한의 사역과 세례는 쿰란 공동체처럼 종파적인 수도원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스와 엘리슨은 그들의 주석에서 요한의 세례를 성경적, 문화적 모티프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관복음서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유아기에 대한 마태의 독특한 자료에 이어, 3장에서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마태의 서술은 다른 복음서들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세 공관복음서 모두 이사야 40장 3절을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언급으로 인용합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사야 40장 3절과 함께 말라기 3장 1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긴 기록으로, 요한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던 통치자들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복음보다 이사야 40장의 더 긴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과 청중 사이의 대화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누가와 마태는 모두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에 대해 언급하는 반면, 마가는 성령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의 기록은 두 가지 매우 눈에 띄고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만이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요한은 주저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의 필요성을 모든 의의 충만함과 연관시키십니다. (마태복음 3:14, 15)

이 독특한 부분은 성취와 의로움이라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3장 17절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승인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성부의 말씀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해석가들이 자주 지적하듯이, 이는 마태복음에서 성부의 승인이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낳습니다. 비록 마태가 요한에게만 유익하도록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증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변형 사건 당시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하지만, 아마도 삼인칭 화법은 마태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진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의 기능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과 예수 사이의 전환점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고유한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선구자였던 요한은 이제 무대의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도록 합니다. 요한은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지만, 구원 역사에서 그가 예수에게 복종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입니다(4장 17절과 3장 2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요한과 비슷한 운명을 겪으실 것입니다(17장 12절 참조). 하지만 요한이 지닌 위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님의 의미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마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과, 마태가 하나님 통치의 메시지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원론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회개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임박한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결론 부분은 심오한 기독교론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3:17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분명히 나타내는 용어로 묘사됩니다. 특히 이사야 42:1을 살펴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4:22, 예레미야 3:19, 31:9, 호세아 11:1과 같은 구약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은유적으로 적용된 아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에게 적용된 아들의 유형, 사무엘하 7:5-16, 시편 2:7, 89:3 등, 그리고 시편 89편도 있습니다. 국가와 왕에게 한 구약의 언약 약속의 성취는 이집트에서 체류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물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써

예수님을 강조한 것은 창세기 22:2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상기시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영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모습에서 창조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의 갱신을 시작하셨습니다(마태복음 19:28 참조).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시작된 예수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 사역의 마지막 준비 단계인 시험에서 시작하여 4:12-25에 나오는 갈릴리에서의 공생애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준비 단계에서 공생애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4:1-11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는 사탄이 등장하는 서론과 4:11에서 떠나는 결론으로 구성된 세 가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사탄의 삼중 시험을 이기신 아버지의 세례 보증을 확증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제공한 것들, 즉 육체적 양식, 놀라운 보호,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의 특별한 신분 덕분에 이미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험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시험을 그대로 재현하며, 그의 백성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유혹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유혹 이야기와 상당히 다릅니다.

마가는 유혹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 제공하고 세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모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처럼 성령의 인도가 예수님의 유혹을 위한 명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3절은 예수님의 금식을 세 가지 다른 유혹 사건으로 나누어 묘사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과 일치하지만, 누가복음의 순서는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돌을 떡으로 만든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보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음 두 사건의 순서는 다릅니다. 이 유혹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그리고 이 유혹의 모형론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령.

4장 1절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한다고 읽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독자는 이미 성령이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1장 18-20절)와 사역을 위한 권능 부여(3장 16-17절, 그리고 12장 18-28절)의 배후에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3장 16절), 이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후

승천하실 예수님의 승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28장 18-20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은 언뜻 보기에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이 사탄의 악한 계략과 어떻게 수렴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심오한 작업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페라조' (peradzo)는 인격을 계발하고 인정을 얻는 '시험'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악을 부추기고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는 각 문맥의 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쩌면 두 가지 미묘한 차이가 여기에 모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인정을 얻으려 하시는 반면, 사탄은 같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미스터리하게도 못마땅하게 여기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과 사탄과 죄인들의 악의적인 계략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이 시험에서 성경을 언급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사탄은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만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승인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아들 되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탄은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평행구절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유혹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유혹과 유사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유혹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조상의 반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순종을 특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본보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유혹의 길과 관련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악된 방법으로 양식을 얻으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성경적 진리(신명기 8장 3절)와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성경적 진리(신명기 6장 11절)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혹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보호하심이 극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길에서 불순종하여 뛰어내려 공중에 떠 있는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시험하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혹의 길은 영광과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적인 지위 획득 방식을 조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발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신명기 6:13)과 일치하는 영광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유혹을 받으실 때 적절한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인용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백성의 과거 실패를 의식하셨고, 그 실패의 이유도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도 의식하셨습니다(3:16 ; 4:1-12, 18-21).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얻는 지식과 성령을 통해 얻는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에 직면하여 순종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갖는 데서 옵니다. 성경을 꾸준히 공부하고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 겸손히 성령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마귀를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4장 12-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인 4:12-25에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물러가 자신의 사역과 구약 예언의 성취를 시작하십니다(4:12-16). 이사야 9:1과 2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천국인데, 요한복음 4:17의 핵심 구절에서 언급되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임자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3:2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핵심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고(4:18-22), 그분의 메시지는 권능 있는 행적으로 증명됩니다(4:23-25). 지리적으로 예수님은 4:1에서 유대 광야에서 4:12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며, 먼저 나사렛으로 가신 후(4:13), 가버나움에 거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4:13-22). 그 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온 땅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4:23-25). 이 갈릴리 사역은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었으며, 천국, 성경의 성취, 이방인의 구원과 같이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16절은 심판의 한가운데에 있는 약속의 맥락에서 언급되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스릴 아들에 대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미트라교의 주제와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열시받는 지역과 그곳이 열시받는 이방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죄인들을 자신과의 교제로 받아들이신다는 관념을 반복합니다.

마태는 1장 3절, 5절, 6절, 2장 1절, 5장 47절, 6장 32절, 15장 28절, 22장 9절과 같은 암시적인 세부 사항이나 8장 10-12절, 21-43절과 같은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독자들에게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갈릴리 사명을 준비시켜 줍니다. 또한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유행하던 용어를 사용하자면 '통전적'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뿐 아니라 영적 필요도 돌보셨는데, 때로는 영적 필요가 육체적 필요보다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치유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핍한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셨는데, 많은 경우 그분의 설교를 듣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분명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했지만(4:17; 10:6),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공훈의 행위도 행해야 했습니다(4:24; 10:1). 마귀를 물리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시자마자, 사역 초기에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마귀의 억압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으로 제시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은 산상수훈 이후 마태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8, 9, 12, 15, 17장에서 이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특히 8장 29절에 나오는 한 사건은 악령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그분이 자신들에 대해 가지신 궁극적인 종말론적 권위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도의 부르심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이 테이프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25절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강력한 행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가족과 생계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순종적인 반응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 사건들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사역의 본보기로 이해하고, 첫 제자들의 순종을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종을 촉구하는

본보기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제자도 부르심에 대한 첫 제자들의 즉각적이고 의심 없는 희생적인 반응은 오늘날의 본보기가 됩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소명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의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예수님께 응답하는 데 있어 어떤 지연이나 모호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이러한 순종은 8장에 나오는 제자가 되려는 자들의 변명과 대조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참된 제자들조차도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엄청나지만, 그들에게는 19:27에서 30까지의 큰 보상이 있습니다.